

보도 협 조 요 청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국민 설득 부족, 미래 사회 인간 정의 바꿀 중차대한 사안 졸속 처리 안 돼... 노동시민사회 한목소리 요구

일시 장소 : 2019. 11. 12. (화) 10:2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음. 이중 국가 개인정보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오는 11월 14일(목)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여야 쟁점법안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유전자정보, 질병정보 등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기업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 고밖에 보여지지 않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일반의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축소 또는 위협받음에도 정작 국민 일반과의 충분한 논의가 없이 추진되어 왔음. 특히 이들 법안들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시민 사회의 비판이 거세었던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법안으로 가져와 입법화하려는 것이라 이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감출 수가 없음.

이에 민주노총,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
크센터는 11월 12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 합의 없이 기업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추진
되고 있는 데이터3법의 개악을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
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이번 기자회견은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소개로 이루어짐.

2. 개요

제목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1. 12.(화) 10:20 / 국회 정론관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참여연대, 진보네트
워크센터

소개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발언1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발언2 :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

발언3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발언4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공동입장문 낭독

문의 : 민주노총 김연홍 기획실장(02-2670-9131),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02-774-4551), 참여연
대 정보인권사업단 이지은 선임간사(02-723-0666),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현 국장(02-522-7284), 민
변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02-522-7284)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11월 11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참여연대, 진보네트워
크
터**